

국제기관간MOU지원사업 과제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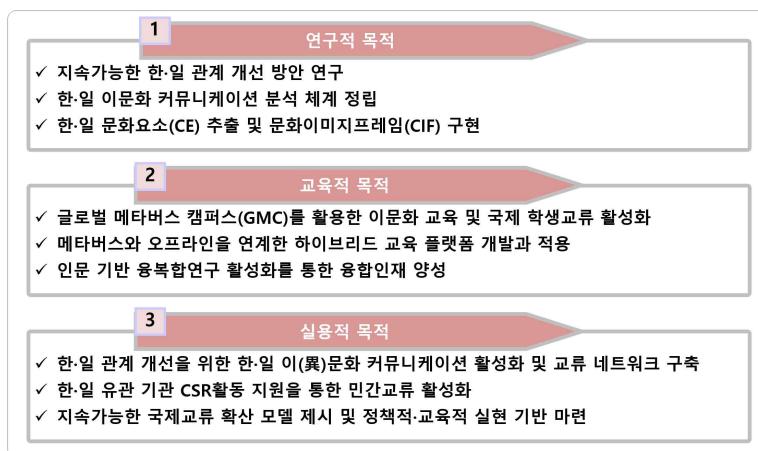
1. 요약서

세부사업명	한·일(JSPS)협력사업(협력연구)		
국문과제명	하이브리드형 한·일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개선 연구		
영문과제명	A Study on Sustainable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Hybrid Korea-Japa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Platform		
연구분야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연구유형	연구자교류		
한국 측 연구책임자	성 명	LEE JUNSEO	소속기관 SUNGKYUL UNIVERSITY
일본 측 연구책임자	성 명	KIM SEDUK	소속기관 OSAKA UNIVERSITY OF TOURISM

○ 연구목표

현대 사회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강화된 다문화·이문화·다언어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며, 문화 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갈등과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역사 인식 및 민족 감정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적 갈등은 소비자 적대감정(consumer animosity)¹⁾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양국 기업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외교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이(異)문화커뮤니케이션²⁾ 능력 강화가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상호작용의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플랫폼을 개발·확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개선과 민간 외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이(異)문화커뮤니케이션 교육 플랫폼 확장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적, 교육적, 실용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림 1. 본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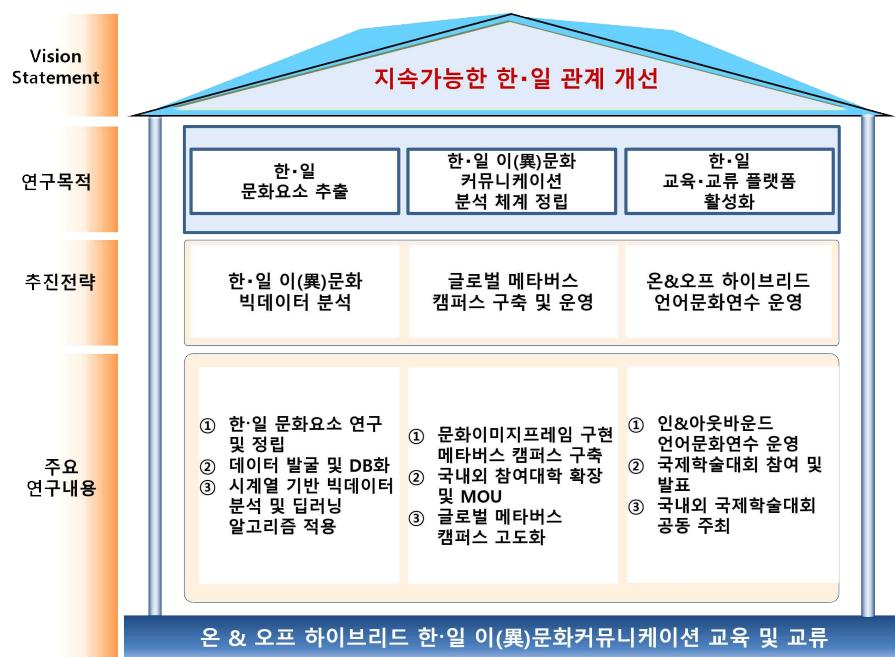
1) Klein et al.(1998)

2) 宮本律子·李明姬(2007)

○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써, 한국의 성결대학교와 일본의 오사카관광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국제협력 연구 과제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 간의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방식을 통해 한·일 양국 학생 및 연구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교육적·정책적 연계성과 확장 가능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본 연구는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을 넘어, 메타버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교육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일 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심화시키고, 디지털 인문학을 결합한 융복합 연구모델을 실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중적인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3.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일 간 이문화커뮤니케이션을 심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 연구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핵심 매개로 활용한다. 특히 한·일 양국의 문화 요소를 정량적으로 추출·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문화 이미지프레임(CIF)³⁾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메타버스 내에서 양국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참여형 문화 학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한 교육 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 CIF는 감성 분석, 자연어처리 등 텍스트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문화 인식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 공간 내 가상 전시, 시뮬레이션 콘텐츠, 문화 비교 체험 활동 등에 적용되어 학습자 중심의 몰입형 이문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문화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해석하는 학제 간 교육·연구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2. 연차별 연구목표 및 추진일정

2.1 연차별 연구목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정량적 분석과 메타버스 기술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핵심 연구요소를 상호 연계하고 융합하여 통합적인 성과 도출을 도모한다.



[그림 4. 연구방법 및 연구목표]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학문적·기술적 흐름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도	목표	주요내용
2026	1. 한·일 문화요소 기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의 온라인 텍스트(SNS, 포털, 뉴스 등)에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관련 핵심 키워드 및 감성이 추출 - 문화요소(Cultural Elements) DB화 및 분류 체계화 - 이미지프레임(Cultural Image Framing, CIF) 기반 시각화 설계
	2.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의 1차 설계 및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메타버스 캠퍼스 1차 구축(ZEP 등 활용) - 언어·문화 중심의 온라인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 오사카관광대와 공동 커리큘럼에 기반한 시범 강의·워크숍 운영 - 초기 사용자 피드백 수렴을 통한 기능 보완
2027	1. 온·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교육 체계의 확대 및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동계 계절제 연계형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 온·오프라인 통합 학점연동형 커뮤니케이션 수업 운영 - 국내·외 참여대학 및 지역기관과의 연계 확대 (MOU 체결 포함)
	2.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및 연구 성과의 학술·정책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F 기반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시각화 기능 고도화 -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공동 발표 및 논문 게재 - 교육부·외교부·문화부 대상 지속가능 국제교류 정책 제안서 작성 - 플랫폼의 타국 확산 가능성 검증 및 다자간 확장 기반 마련

3) 이준서(2013)

2.2 추진일정

내 용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기자재 구매 및 연구실 셋팅								
한·일 문화요소 정립 및 추출								
과거 5년간의 한·일 의식주 문화 웹 크롤링								
정기적 한·일 웹 크롤링								
문화요소 가미 문화이미지프레임 제작								
문화이미지프레임 적용 메타버스 캠퍼스 구현								
한·일 이(異)문화 빅데이터 분석								
한·일 온·오프라인 언어문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양교 간 국제세미나 및 성과발표회 개최(메타버스)								
양교 4개 기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및 환류								
국내외 학회 참석								
학회 발표 및 논문 투고								
글로벌 메타버스 캠퍼스(GMC) 고도화								

3.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한국 측)

본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는 교육·연구·개발을 포괄하는 융복합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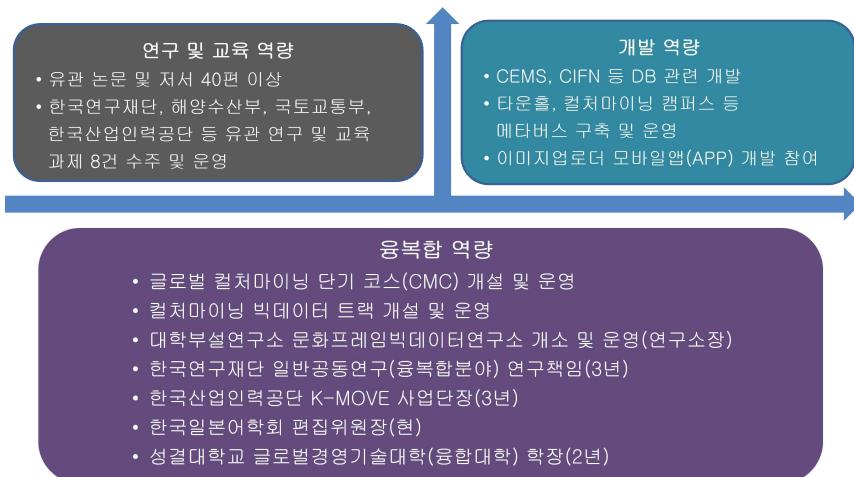
먼저, 연구 및 교육 역량 측면에서 연구진은 40편 이상의 유관 논문 및 저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수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건 이상의 연구 및 교육과제를 수주·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과제 기획, 데이터 분석, 결과 확산 등 전주기적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개발 역량에 있어서는, CEMS, CIFN⁴⁾ 등 다양한 문화·감성 데이터베이스(DB) 관련 시스템의 기획 및 개발에 참여해왔으며, 메타버스 기반 타운홀·캠퍼스 플랫폼 등 디지털 공간 구성에도 실질적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 업로드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개발에도 참여한 경험을 통해, 본 연구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 설계 및 구현에 있어 실무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팀은 교육과 기술, 문화 간 융합을 실현하는 융복합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글로벌 컬처마이닝 단기코스(CMC) 및 빅데이터 분석 트랙을 자체적으로 설계·운영하였으며,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를 개소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융복합 분야) 3년 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사업의 사업단장으로 3년간 재직하였다. 한국일본어학회 편집위원장(현직), 성결대학교 글로벌경영기술대학 학장(융합대학, 2년 역임) 등 학술적·행정적 리더십 경험도 풍부하다.

이러한 연구진의 입체적 역량은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문화데이터 분석, ▲디지털 플랫폼 설계, ▲하이브리드형 교육 운영, ▲국제협력 및 학술적 확산이라는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4) 이준서 외(2020)



[그림 5. 연구책임자의 역량(한국)]

4. 국제교류·연구 추진계획

4.1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한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해왔으며, 그 중심축 중 하나가 바로 한·일 관계이다.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교류, 문화 콘텐츠의 상호 확산 등 다양한 접점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으나, 역사 인식, 민족주의 정서,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 노선 변화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긴장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이처럼 구조적 제약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외교적 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민 간, 특히 미래 세대 간의 일상적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양국 대학생 및 연구자 간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를 중심에 두고, 이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교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진 현세대 청년들에게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공간이 단순한 대체 수단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영역에서도 이를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단기적 체류 중심의 물리적 교류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이문화 이해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장기적·지속적 교류가 가능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성결대학교와 오사카관광대학교 간의 수년간의 교류 경험과, 공동으로 추진한 하이브리드형 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현장성, 실현 가능성, 확산 가능성을 고루 갖춘 실증적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적 통찰, 그리고 이문화 교육의 접점을 통합한 새로운 학제 간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동아시아형 국제협력교육 플랫폼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4.2 상대국 연구책임자(기관)의 연구역량

본 연구의 일본 측 공동연구자인 김세덕 교수(大阪觀光大學 관광학부)는 정치학 박사(神戶大學大學院)로서, 한일 비교 정치, 다크 투어리즘, 민주 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 년에 걸친 연구 및 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 민족교육, 역사 인식, 지방자치 및 평화 교육에 걸친 다층적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문화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 교육, 공공정책 비교 등에 대한 연구 성과

를 활발히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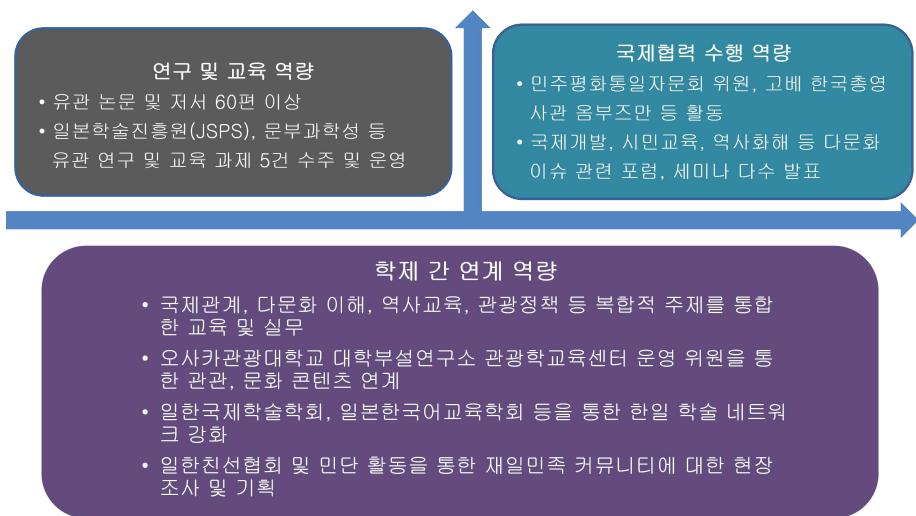
김 교수는 2005년 이후 關西學院大學, 芦屋大學, 大阪觀光大學 등 일본 내 주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死者の政治學’, ‘韓國の民主市民教育’, ‘平成時代の日韓關係’ 등의 주요 저작 및 번역서 출간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전환과 역사 담론에 대한 일본 내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어 교육과 한일관계 교육을 동시에 아우르는 강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日韓國際學術學會, 日本韓國語教育學會, 現代韓國朝鮮學會 등 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과학연구비(KAKENHI) 수주 과제를 4건 이상 수행 중이며, 특히 한일 간의 역사 인식 문제와 오랄 히스토리 연구, 복지 국가 비교 연구 등 다양한 협동 연구 프로젝트에 핵심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의 대표 연구 분야인 민족교육, 다크 투어리즘, 역사·기억의 정치, 그리고 한일 정치문화 비교는 본 연구의 핵심인 한일 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구조 분석, 이미지 프레이밍, 역사 인식 교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하위과제 중 하나인 ‘한일 문화이미지프레임 구현 및 검증’에 있어 김 교수의 이론적 전문성과 실증적 분석 경험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 교수는 大阪觀光大學 내 국제교류 및 관광문화 관련 거점 교육기관과의 연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증 현장인 글로벌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및 운영, 그리고 한일 양국 참여자 간 상호작용 설계 및 평가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실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풍부한 학제 간 연구 경험과 한일 사회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과 한일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학술적·교육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동 연구자이다.



[그림 6. 공동연구자의 역량(일본)]

4.3 상대국과의 역할분담 및 연구수행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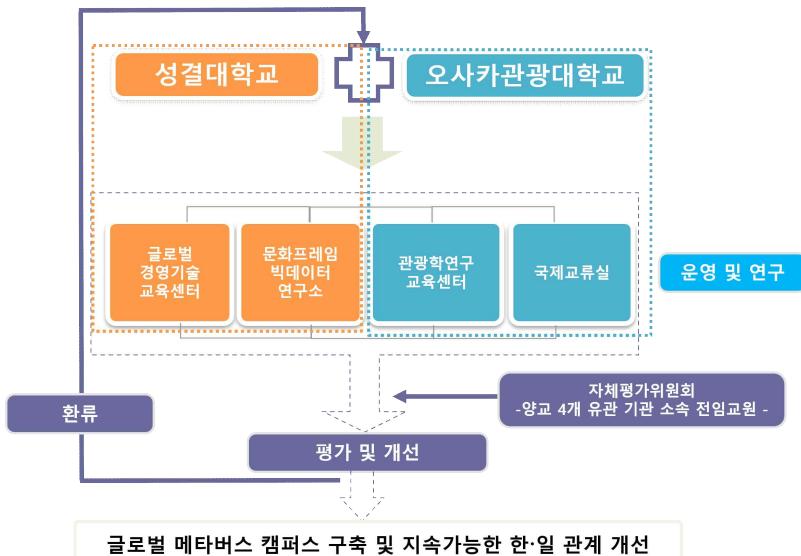
본 연구는 성결대학교(대한민국)와 오사카관광대학교(일본)의 공동연구 체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특화 기관과 연구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된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형 메타버스 기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플랫폼’이라는 융복합적 연구 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교 내의 다양한 기능별 기관이 분업적이면서도 통합적인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한국 측의 성결대학교는 ▲글로벌경영기술교육센터와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이문화 분석 및 교육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며, 일본 측의 오사카관광대학교는 ▲관광학 연구교육센터 및 ▲국제교류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운영, 교육 콘텐츠의 지역화

(localization), 현지 수요 기반 확산 전략을 담당한다. 양 대학은 정기적 회의를 통해 운영성과를 공유하며, 콘텐츠 개발, 교류 프로그램 설계,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공동 수행한다.

연구 추진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양교의 4개 유관기관 소속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콘텐츠 품질, 학술적 타당성, 운영 안정성, 확산 가능성 등 다면적 요소를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렴된 결과는 '환류(feedback)' 메커니즘을 통해 양교 공동 플랫폼의 지속적 개선 및 고도화에 반영된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본 연구는 단순한 단발성 국제교류를 넘어, 데이터 기반, 교육 실천 기반,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하이브리드형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연구 추진체계 및 환류의 목적]

5. 연구비 총괄표(한국 측)

(단위 : 천원)

항목	비목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직접비	인건비	(A)	지급	현금		0	
				현물		0	
	외부 인건비	(B)	미지급			0	
			지급	현금		0	
				현물		0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0	
	학생인건비(D)					0	
	소 계 (E=A+B+C+D)			0	0	0	
	연구시설· 장비비(F)	현금	일반	1,000	1,000	2,000	
			통합관리			0	
		현물				0	
	연구활동비(G)			3,650	3,650	7,300	
	연구재료비(H)					0	
	연구수당(I)			9,600	9,600	19,200	
	소 계 (J=F+G+H+I)			14,250	14,250	28,500	
	직접비 소계 (K=E+J)					0	
	간접비(L)			750	750	1,500	
	연구비 총액(M=K+L)			15,000	15,000	30,000	

[참고문헌]

- 김혜연(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여관」과 일본의 「료칸」의 이미지 비교분석」 『호텔관광연구』 22-4, 한국호텔관광학회, pp.43-56
- 김혜연(2021) 「음식관광, 음식현지화 전략을 위한 「라면」과 「라멘」의 한일 식문화 이미지 대조분석」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pp.203-217
- 김혜연(2022)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한일 어휘교육 방안연구-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어교육연구』 59, 학회, pp.119--132
- 김혜연(2023) 「메타버스를 활용한 에듀테크 연구-일본어 교육방안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96, 한국일본어문학회, pp.87-107
- 박해광(2007) 「문화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2-1, pp.83-116
- 신정민 · 김상연(2022) 「메타버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에듀테크」 『정보과학회지』 40-4, 한국정보과학회, pp.21-30
- 염미란(2022) 「비대면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실천 연구-패드렛과 구글 문서 활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pp.315-332
- 윤호숙(2022) 「한국의 교육환경 변화와 에듀테크를 통한 일본어 교육의 다양한 학습형태」 『일본문화학보』 92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5-313
- 이근희(2015) 『번역의 이론과 실체』, 학국문화사
- 이준서(2013) 「일본어학: 틀의미론 (Frame Semantics)에 입각한 일본어 “Ingestion” 동사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 (Culture-ImageFrame)” 연구」 『일본연구』 20, pp.45-61
- 이준서 · 한경수 · 노옹기(2020) 「빅데이터 기반 다중언어 문화이미지프레임망 구축 구상」 『한국일본어학회』 65, pp.131-142
- 이준서(2022) 『R컬처마이닝』 박문사
- 이준서(2022)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컬처마이닝」 『일본어학연구』 73, pp.93-106
- 이준서(2022) 「컬처마이닝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구상」 『일본학연구』 66, pp.51-67
- 이준서(2023)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한·일 Ingestion 프레임 연구」 『비교일본학』 59, pp.341-353
- 이준서(2024), 한·일 구전 커뮤니케이션 컬처마이닝—글로벌기업 T사 L자동차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69), pp.89-102.
- 이준서(2024), 한·일 소비자평 컬처마이닝—글로벌기업 D사의 청소기를 중심으로—, 일본학보(140), pp.153-170.
- 이준서 외(2024), 관서지역(KANSAI) 컬처마이닝, 박문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2021.2.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가이드북, 2019. 11.
- Agrawal, R., & Srikant, R. (1994). Fast algorithms for mining association rules. In Proceedings of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ery large data bases(VLDB), pp.487-499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Devlin, J., Chang, M. W., Lee, K., & Toutanova, K. (2019).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In Proceedings of NAACL-HLT 2019, pp. 4171-4186

- Fillmore C(1977). Scenes-and-frames semantics. *Linguistic Structures Processing*, 55-81
- Fillmore Charles, J.(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23-131
- Fillmore, Charles, J.(1992), Corpus linguistics or Computer-aided armchair linguistics, *Directions in Corpus Linguistics/Mouton de Gruyter*, pp.35-60.
- Hyatt, J., & Simons, H. (1999). Cultural Codes – Who Holds the Key? : The Concept and Conduct of Evalu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valuation*, 5(1). 23-41
- Mona Baker(2005) 『말 바꾸기』, 곽은주 역, 한국문화사
- Y. Roh, G. Heo and S. E. Whang. (2021). A Survey on Data Collection for Machine Learning: A Big Data – AI Integration Perspective, in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vol. 33, no. 4, pp. 1328-1347, 1 April 2021, doi: 10.1109/TKDE.2019.2946162
- 鄭起永·諫訪明宏(2011)「韓日多文化遠隔教育の事例と成果」『日本語教育研究』20, 한국일어교육학회, pp.289-305
- 盧姝鉉(2021)「大学のオンライン日本語クラスにおける反転授業の実践－初心者向けの専攻科目『基礎日本語文法』の場合」『日本語学研究』69, 韓国日本語学会, pp.39-54
- 宮本律子・李明姫(2007)「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の育成を目指すICT利用の教育－日韓学生による協同作品作りを例に－」『日語日文学』34, 대한일어일문학회 pp.133-141